光州日報 Weekend

제18398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9년 6월 20일 (음력 5월 28일) 토요일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20(土)	21(日)
흐리고 비 24/27℃	흐리고 비 22/27℃

News

- 4대호 농업용수 제한 ②
- 북구 '주부 순찰단' 1년 ③
- 동성고 무등기 4강 ⑭

Entertainment

- TV 드라마 '친구…' ⑦
- 스타들 목소리 연기 대결 ⑩

Wellbeing

- 천연 조미료 만들기 ⑤

Books

- 존 그리샴의 스릴러물 ⑧
- 천재 앵무새 '알렉스' ⑨

무등기 야구대회에 쏠린 국내외 프로구단의 '눈'

한국 프로야구와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19일 오전 제16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가 열리는 무등경기장에서 유망주를 찾느라 혈안이 돼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도 "숨은 보석 찾아라" 전쟁

마지막 기량체크 실전장
스피드건 들고 20명 북적
1년중 6개월 이상은 출장
"체력 기본 인간성 갖춰야"

지난 2007년 개봉한 영화 '스카우트'는 대학 야구부 직원인 호창(임창정 역)이 1980년 당시 광주일고 3학년인 선동열을 스카우트하라는 명령을 받고 동분서주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실제 스카우트의 세계는 영화 속보다 훨씬 복잡하고 힘들다. 연중 절반은 집 밖에서 자야하고, 점찍어 둔 대어에 대한 모든 것을 체크해 밀고 당기는 몸값 흥정을 해야 하는 등 긴장의 나날이다.

◇"보석을 찾아라"=이들에게 광주일보사 주최 무등기 전국 야구대회는 특히 바짝 신경을 날카롭게 하는 대회다. 프로야구 지명회의(8월 17일)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으로 실전무대에서 선수들을 체크할 수 있는 대회이기 때문이다.

올해도 20여명이 몰려왔다. 국내 8개 프로 구단 스카우트는 물론 미네소타 트윈스와 시카고 컵스 등 메이저리그 3개 구단에서까지 무등경기장을 찾아 보석을 찾느라 혈안이다. 한국 야구의 실력은 이미 베이징올림픽 우승,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준우승으로 입증됐다. 무등기 대회는 잘만하면 흙에 묻혀 있는 원석을 찾아내 '대박'을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기아 타이거즈 윤석민과 한화 이글스 류현진이 각각 지난 2004년과 2005년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 2차 1번으로 지명된 경우다. 숨은 대어를 낚으면 구단의 보너스도 두둑하다. 대어인 줄 알고 잡았는데, 부상 등으로 실력 발휘를 못 하면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스카우트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찍어둔 선수가 아무리 좋은 활약을 해도 무작정 깎아내릴 정도로 속내를 감춘다. 올해는 특히 연고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선수를 지명하는 전면 드래프트제로 바뀐 탓에 눈치싸움이 더 치열해졌다.

삼성 라이온즈 이성근 차장은 "전면 드래프트제 도입으로 보안유지가 거의 '전쟁'수준"이라며 "자칫 잘못된 선수 정보를 줬다가 기량 미달인 선수를 뽑기라도 하게 되면 구단서 큰 질책을 받는 만큼 드래프트가 다가올수록 스트레스지수가 솟구친다"고 토로했다.

◇대부분 선수 출신=스카우트들은 보통 동계훈련이 시작되는 12월부터 프로야구 드래프트가 실시되는 8월까지 분주하다. 이들은 대통령배, 봉황기, 청룡기, 무등기 등 고교야구 대회부터 대학야구까지 1년에 15개 이상의 아마추어 대회를 쫓아다녀야 한다. 1년에 6개월 이상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

때문에 스카우트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야구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체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 대부분이 야구선수출신이다. 심리파악이나 의학지식 같은 것에도 정통해야 한다. 성실성이나 인간성도 필수다. 부지런히 다니고, 인간관계도 좋아야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 외국어도 잘 해야 한다.

미네소타 트윈스의 데이비드 김(38) 스카우트 팀장은 "대만 리그에서 마음에 드는 선수를 찾은 후 노트북에 기록할 때 중국어를 잘 몰라 다른 팀의 소속으로 쓰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재방문 후 엉뚱한 팀만 한참 따라다녀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공공기관장 4명 해임 건의

정부, 경영 성과 부진 책임…17명은 경고 조치

정부는 청와대에 한국소비자원장 등 경영평가가 나쁜 공공기관장 4명에 대해 해임 건의했다. 또한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성과부진 기관장 17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를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08년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를 이같이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장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50점이상~60점 미만을 받은 한국소비자원 원장을 포함해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청소년수련원 원장을 해임 건의하기로 했다. 경고 조치 대상 기관장 중 공기업은 한국석탄공사, 한국주택공사, 한국감정원, 방송광고공사, 한국토지공사다.

특히 전체 92개 공공기관장 가운데 무려 22.8%에 달하는 기관장이 경고 또는 해임 건의를 당해 향후 공공기관장에 대한 경영 압박이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北 "개성공단 통행제한 풀 용의"

북한은 19일 남북 당국간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작년 12월1일부터 시행한 육로 통행 및 체류 제한 조치를 풀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억류 근로자 석방, 임금 및 토지임대료 인상 등 쟁점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다음 달 2일 회담을 속개하기로 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북한은 입주 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 차원에서 작년 12월1일 취한 육로통행 및 체류 제한 조치를 풀어줄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측이 언제부터 풀어줄 것인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는지 등은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작년 말 '12.1 조치'로 불리는 제1단계 남북관계 차단조치를 시행하면서 개성공단을 오가는 육로통행 시간대를 하루 19회(방북 12회.귀환 7회)에서 6회(방북.귀환 각 3회)로 축소하고 시간대별 통행 인원 및 차량수를 500명.200대에서 250명.150대로 줄이는 한편 개성공단 상시 체류 자격 소지자 수를 880명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주요 현안을 둘러싼 남북의 여전한 입장 차에도 불구, 양측이 다음달 회담을 재개키로 한 점, 북측이 '12·1조치' 중 일부를 해제할 용의를 시사한 점 등으로 미뤄 개성공단이 폐쇄 수순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는 일정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연합뉴스

5·18단체 도청 별관서 철수하나

오늘 최종 입장 발표

1년째 옛 전남도청 별관철거 반대 농성중인 5·18단체가 농성 해산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20일 오전 9시 긴급이사회를 열어 별관 농성해산에 대한 방침을 결정한 뒤 최종 입장을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5월 단체가 지난 16일 제안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물리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농성을 해산하겠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된데 따른 것이어서 농성 해산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추진단은 지난 17일 '10인 대책위원회"에 보낸 공문에서 "10인 대책위원회의 활동 마감시한인 7월15일까지는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법원에 권고 하겠다"고 밝혔었다.

5·18 유족회와 부상자회는 지난 2월17일부터 농성을 속개했다. 이들 단체는 별관철거 반대 농성을 주도했던 5·18 구속부상자회가 별관을 철거하되 상징물을 건립하는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한 뒤 해산하자 농성을 승계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늘 무등기 준결승

장충고-동성고 〈오전 10시〉
개성고-경기고·야탑고 승자
〈오후 1시·Xports 중계〉

〈관련기사 14면〉